



제4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

○ 일 시 : 2015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 주 관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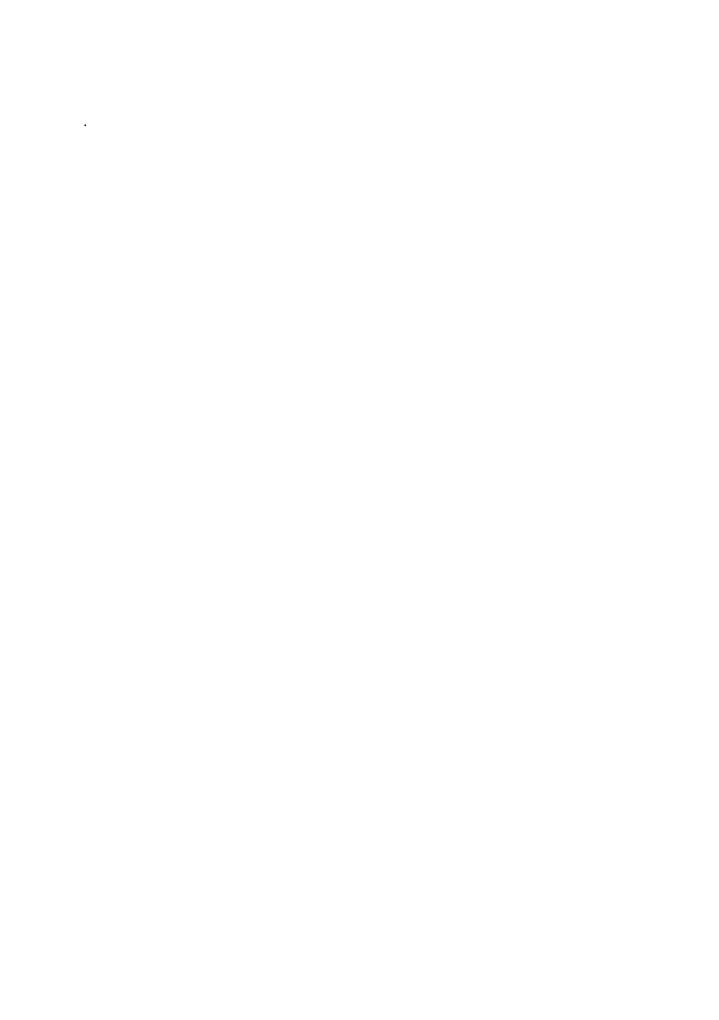
목 차

환영사 박원순(서울특별시장)

I. 컨퍼런스 소개

Ⅱ. 발표문		
기조강연	농업의 공적인 가치확산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19
	이상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제 1 주제	민선 5기 서울 도시농업, 무엇을 남겼나?	
발표문 1 :	서울의 선택, 도시농업	25
	김완순(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발표문 2 :	서울 도시농업 원년 선포와 변화	33
	민동욱(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제 2 주제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다	
발표문 1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과 미래비전	41
	고창록(한신에코팜 도시농업-사회적경제 포럼 대표)	
발표문 2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볼 것인가?	57
	이종석(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명예교수)	

제 3 주제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발표문 1: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69
	토미자와 렌(생활클럽생협·동경 정책조정부 정책추진과장)	
발표문 2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 개선 방안	91
	최정석(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발표문 3 :	도시농업을 위한 건축에 대하여	103
	백승만(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제4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국내외 도시농업 전문가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은 노들텃밭에서 서울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함께 도 시농업을 통해 서울을 생명의 도시로 되살리고 시민의 삶을 풍



요롭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농장에서, 옥상에서, 베란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도시농부들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소통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그 속에서 싹 튼 공동체 의식은 삭막한 도시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먹는 것 외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도시공동체 회복, 정서함양과 치유 효과, 교육 및 건강증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온실가스 감소 등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도시농업을 통해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냄으로써 도농상생에 크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써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공간 확보와 함께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제4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가 서울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컨퍼런스 소개

·		

컨퍼런스 소개

1. 주제

서울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 민선 5기의 성과와 민선 6기의 과제

2. 목적

-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서울 도시농업의 성과 평가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논의
-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의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

3. 개요

- 일시 : 2015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연구소
- 주최: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4. 발표자 및 토론자

- 1) 개막식 및 기조강연
 - 환영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인사말 : 안철환(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기조강연 : 농업의 공적인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 이상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 2) 제 1 주제 : 민선 5기 서울 도시농업, 무엇을 남겼나?
 - 좌장 : 안철환(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발표 1 : 서울의 선택, 도시농업
 - 김완순(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 발표 2 : 서울 도시농업 원년 선포와 변화
 - 민동욱(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토론자 :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곽혜란(서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 과 교수), 주성호(강동구청 도시농업육성팀 팀장), 이승봉(경기도 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 3) 제 2 주제 :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다
 - 좌장 : 구은경(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발표 1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 고창록(한신에코팜 도시농업-사회적경제 포럼 대표)
 - 발표 2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종석(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명예교수)

- 토론자 : 옥진주(한국사회원예연구소 소장), 신동헌(도시농업포럼 대표), 김 경원(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김진덕(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 회 대표)
- 4) 제 3 주제 :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 좌장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발표 1 :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생활클럽동경 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토미자와 렌(생활클럽생협·동경 정책조정부 정책추진과장)
 - 발표 2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 개선 방안
 - 최정석(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발표 3 : 도시농업을 위한 건축에 대하여
 - 백승만(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토론자 : 이보은(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이경란(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이양주(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5) 종합 토론

- 좌장 : 이창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의회 연구소장)
- 발표자(각 주제의 좌장) : 안철환, 구은경, 오충현

5.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등 록	9:30 ~ 10:00	참가자 등록				
개막식		· 환영사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 인사말 : 안철환(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기조강연 : 농업의 공적인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 이상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제1주제	10:40 ~ 12:40	민선 5기 서울 도시농업, 무엇을 남겼나? - 좌장: 안철환(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발표 1: 서울의 선택, 도시농업 - 김완순(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 발표 2: 서울 도시농업 원년 선포와 변화 - 민동욱(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토론자: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곽혜란(서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주성호(강동구청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휴 식	12:40 ~ 14:00	점심 및 휴식				
제2주제	14:00 ~ 15:30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다 - 좌장: 구은경(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발표 1: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 고창록(한신에코팜 도시농업-사회적경제 포럼 대표) - 발표 2: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종석(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명예교수) - 토론자: 옥진주(한국사회원예연구소 소장) 신동헌(도시농업포럼 대표) 김경원(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김진덕(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시 간	내 용
휴 식	15:30 ~ 15:40	휴 식
제3주제	15:40 ~ 18:00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 좌장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발표 1 :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 토미자와 렌(생활클럽생협·동경 정책조정부 정책추진과장) - 발표 2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 개선 방안 - 최정석(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발표 3 : 도시농업을 위한 건축에 대하여 - 백승만(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토론자 : 이보은(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이경란(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이양주(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종합토론	18:00 ~ 18:30	종합 토론 - 좌장 : 이창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의회 연구소장) · 발표자(각 주제의 좌장) : 안철환, 구은경, 오충현



기조강연문

농업의 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이상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농업은 단순히 소득과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인간생명의 일상적 재창조 과정의 기초 동력인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 행위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니라 지금이 순간 생명을 유지해야하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화급하게 보장되어야할 생명의 젖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몸이라는 말은 모음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먹을거리, 즉 식량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식량은 우주가인간에게 준 젖이라고 도합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식량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생물이 생겨났다. 땅에서 사는 생물들은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대로 음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니 다시 삶이 끝날 때 음식에 돌아가 잠기노라. 음식은 모든 것을 받쳐 주는자. 숨은 음식에서 나온 즙이요, 마음은 숨에서 나온 즙이라."고 했습니다.

생태적 삶을 행복하게 살았던 웬델 벨리라는 사람은 "먹는다는 것은 농업행위이다"라고 하면서 인간 삶의 기본으로서 먹을거리 생산 소비의 일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농업과 수공업은 문화의 근본이다. 농업과 수공업이 존재할 때만이 상업, 혹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인류 문화형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케인즈도 자신의 대학 잡지에 "농업이 자기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가라고 의심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기고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량자급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류역사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 인종과 문화의 발달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도시는 농업과 연관된 위치에서 탄생했습니다. 문명의 기초는 사람을 부양하는 먹을거리라는 것입 니다. 이 먹을거리를 낳는 것이 농업인만큼 농업이야말로 앞으로도 문명의 요람이 될 수밖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어떤 첨단 과학 기술문명도 먹는 목적에 맞는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이 한 점으로라도 남아 있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목적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농업은 인간 생명존립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물질과 삶의 가치와 문화를 제공하는 기본 토대로서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독일 연방 정부가 발간한 독일연방정부의 농업관 안내서는 "농업, 우리가 살기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 독일 정부는 농업이 필요한 열 가지 기능으로서 농업은 안정적인 식량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국민 산업 기반이 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과 가계 지출을 줄여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 문화 경관을 보존 하며 농촌마을을 유지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치유와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값비싼 공업원료작물을 생산하기도 하며 대체에너지 등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제공한다는 내용이 사례와 함께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것이 아니라국민 모두의 것이며 농업과 농촌의 존립이 바로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확고한 국정운영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농업관처럼 공기 물과 같은 인간 생존에 절대적인 이와같은 농업의 국민 생명안전망에 대한 공공성은 생태농업, 친환경농업일 때 그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해야 될 식량 생산 공급처로서의 우리나라 농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3백 명에 가까운 꽃봉오리 생명이 사라진 세월호의 참사에 온 나라가 생명안전망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보다 더 엄청난, 아니 전면적 이 땅의 인간 생명위기의 해일이 밀려오는데 이를 알아채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생명유지 자급률이기도 한 식량 자급률이 유사 이래 가장 낮은 23%를 밑돌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에 절대적인 농지는 매년 1%이상씩 줄어들어 자급 최저선인 160만 정보 밑으로 내려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매년 2% 이상씩 줄어 112만 가구에 278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중 60세 이상 경영주가 69.2%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40세미만은 1.2% 밖에 안 됩니다. 농가 인구 중 10세미만은 9만 3천명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20년 뒤 모두 농민이 된다고 해도 20년 뒤 우리나라 실질 농민은 10만 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자녀를 농민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하는 부모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면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농업의 임종시기가 눈앞에 급속도로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노임 공업화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사오십년간에 걸쳐 행한 수 입농산물을 토대로 한 농산물 저가정책 등 농업희생정책이 근본 원인으로 있습니다. 이 연장 선상에서 공산품 수출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근자의 무제한적인 FTA 확장은 마지막 농업의 숨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속가능한 식량공급과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값싼 가격 기준에서 식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의 왜곡은 생활이 가능한 농민의 식량 생산 조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 생태 환경마저 악화되어 식량 생산기반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 위기는 1만 년 전 공룡 전멸 이래 최대 생물종의 소멸위기 현상을 맞고 있고 근년의 1만년 된 빙붕의 소멸은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 만년에 걸쳐 진행되는 생명체의 진화와 적응 패턴을 인간 동물이 물적 가치의 욕심 채우기로 그 흐름을 단기간에 교란 파괴시킴으로서 식량작물이 어떻게 자라야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경연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농업 환경변화는 지금 남아돈다고 짐스러워 하고 있는 우리 쌀 자급률을 20년 뒤에는 40%대로 떨어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시절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농업, 사람 생명위기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농업 위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이름이 생겨났겠습니까? 도시농업을 통해 밥을 먹어야 사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화석연료의 고갈을 앞두고 먼 거리 이동 식량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안전 밥줄은 자급식량 공급구조를 이 땅의 농업회생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각성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적 국민 생명 안전망 구축이기도 한 자급농업과 우리 농촌살림은 국방비보다 우선 적인 국민 세금활용의 영역이라는 국민인식을 높이는데 도시농업이 농업생산 체험을 통해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농업에 대한 공적지원액이 전체 농가소득 의 40% 이상이 되도록 농가 기본 소득 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도시농업 생산 체험으로 이 땅의 농업 식량을 지속가능한 생산 조건으로 구입하여 자기밥상을 차릴 줄 아는 시민의 증가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농사 체험을 통해 유무생 모든 사물이 상호 의존, 협동을 통해 공생 더불어 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달음 대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이웃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서 모든 이가 우주 만물의 일원으로서 생명 세계관, 가치에 입각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의 혁명에 기여하는 일이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도시어린이들이 도시의 학교에서 농업이라는 말을 접하기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도시농업을 통해 농의 가치를 접하게 되어 농업 농민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2세대, 3세대 청춘 농사꾼으로 등장하는 기능까지 도시농업이 할 수 있다면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는 농업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시민의 삶속에 녹이고 물들여 서울 시민이라도 우리의 농업, 농촌 식량문제가 바로 시민의 생명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도시농업지원 계획이 깊어지고 넓어지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도 가중시키는 먼 거리 이동 밥상,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밥상을 걷어내고 우리농업에 활력을 주는 먹을거리로만 밥상을 차리는데 도시농업이 큰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 우리농업과 자급식량, 생태적 시민 삶의 확장에 대한 깊은 관심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민선 5기 서울 도시농업, 무엇을 남겼나?

서울의 선택, 도시농업

김완순(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1. 서울의 도시농업 현황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88.2%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90.1%, 2011년 이후 91.1%에 달해 2015년 현재 4천6백만 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이 가운데 서울의 도시화는 100%로 가장 높고 천만 명이상의 시민이 이곳 서울에 모여 생활하고 있다(2014 기준 인구10,386,339명, 인구밀도 17,473명/km²).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대도시 서울에서 도시화와 인구과밀에 따른 다양한 환경적 문제와 먹을거리, 공동체 유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가 상기되고 있다.

도시농업의 목적은 산업적 생산 활동보다는 경작 활동 과정에서 얻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먹을거리,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와 푸드 마일을 줄인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이웃과의 공동 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농업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농업이다. 이처럼 도시에서 농사의 경험은 다원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 즉 도시농업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농업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농업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읽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양한 집단들이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거대도시 서울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고 독특할수 있다.

서울에서 도시농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서초구 대원농장에서 서울지역 최초로 주말농장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결국 2007

년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육성지원'이라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2012년 법적, 제도적 기반 아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는 도시농업 원년선포에 이르게 되었다.

민선 5기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374호)」를 제정하면서 도시농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약속하였다. 특히 2012년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2013년 서울 도시농업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민 공감대를 증진시켰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를 위해 자투리텃밭 조성(3,398구획), 상자텃밭 보급(20,200세트), 옥상텃밭 조성(104개소),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실천지원(135개소) 등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 2013). 또한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와 정책평가, 로드맵, 마스터플랜 연구 등 도시농업 정책 기반을 체계화하였다. 2014년에는 서울의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생활녹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생산적 여가활동을 더하여 도시 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텃밭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 변화(김, 2014)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도시텃밭의 면적은 118ha으로 2011년 29ha와 비교하면 4배 증가하였다. 도시텃밭의 개수 역시 2011년 100개소에서 2014년 2,208개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000㎡ 이상이 111개소로 5.3%를 차지하며 1,000㎡ 미만이 1,945개로 94.7%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상자텃밭이나 자투리땅, 옥상텃밭 등 소규모 텃밭들의 개소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시텃밭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0.2%, 공원면적의 0.7%로 서울 변두리를 활용한 주말농장이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65%이며,이 가운데 강동·도봉·서추구의 개발제한구역과 팔당호 주변이 전체 주말농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농부 수 45만 명으로 전국 108만3천 명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농업 정책측면에서도 지난 3년간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다. 2014년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은 75억2천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시농업 예산 190억2천1백만 원(농식품부, 2015) 의 40%에 달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와 16개의 자치구(종로,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구)가 도시농업 조례제정을 마쳤고, 2015년 용산, 중량, 강서, 구로, 강남구가 제정 중에 있다. 즉, 도시농업 정책 추진에 있어 법과 제도적 기반을 거의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텃밭보급소)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5개의 도시농업지원센터(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조경진흥회, 텃밭보급소, 라이네쎄, 송석문화재단)도 운영 중이다. 이는 전국 11개소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도시농업은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도시농업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 도시농업의 실천공간 확보방안

1) 자연지반 도시텃밭 확보

서울시 경지면적은 1976년 6,776ha이던 것이 2012년에는 807ha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서울시 토지이용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 비해 2010년 논 면적은 0.09% 감소하였고, 밭 면적은 0.49% 감소하였으며, 시설경작지 면적 역시 0.25%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4년까지 지정되었던 166.8k㎡의 면적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2004년 이후점차 해제되어 2013년 5월 기준 151k㎡로 1974년에 비해 약 9% 감소하였다. 반면 서울시

공원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1993년 150.4k㎡의 공원면적이 2013년 169.1k㎡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공원면적 역시 13.8㎡에서 16.1㎡로 증가하였다. 즉 서울시의 경지면적,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공원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서울시 도시텃밭의 면적과 45만 명의 도시농부를 기준으로 할 때, 산술적으로 서울 거주 도시농부들은 1인당 평균 2.2㎡의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천공간의 확보가 앞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연지반(땅)의 도시텃밭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반 농지를 도시텃밭 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이나, 지방세 감면을 통해 민간 소유 유휴지를 도시텃밭 용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28%를 차지하는 공원을 도시농업 실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 때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농부 스스로 도시텃밭 용지를 확보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인공지반의 활용

서울시는 포장면적이 넓다. 상자텃밭은 손쉽게 도시텃밭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하나이다. 현재 서울시에 보급된 상자텃밭은 502개소 3.1ha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여전히 적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활용농지가 적은 서울 시내라는 점과불투수 면적이 50%이상인 지역(동대문구, 송파구, 금천구, 성동구 등)에서는 상자텃밭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자텃밭 또한 서울시 도시농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상자텃밭은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지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쉽지 않고, 노지 텃밭이 주거 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참여 열기가 반감될 수 있는데, 상자텃밭은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지난 3년간 대략 6만여 개의 텃밭상자가 서울 전역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보급 당시 이벤트 성격이 짙고 각종 지원으로 잘 진행되지만, 이후 자체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동체 조직과 운영예산, 그리고 재배관리기술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자텃밭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급 수량에 비해 도시농업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 여건 상 상자텃밭 보급은 불가피하지만 보급된 상자텃밭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활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된다.

3) 도시텃밭의 경관성 향상

도시텃밭의 다원적 가치 중 하나로 먹을거리의 자급이 있다. 국내외 도시농업, 도시텃밭의 정의를 보면 다양한 먹을거리와 기타 생산품의 재배(IDRC, 1999), 음식의 재배(미국, 2000), 먹을거리 생산(일본 시민농원정비 촉진법, 1990) 등 먹을거리의 자급이 중요한 가치이자 기능이다. 서울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 먹을거리 재배, 먹을거리 경험, 먹을거리교육 등을 도시의 운영과 계획에서 구현하고자 '농업중심 도시계획'을 세우고 10대 원칙을세웠다. 그러나 도시텃밭이 도시의 미적경관을 높이는 기능 또한 있다. 직접 도시텃밭을 운영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는 도시텃밭의 미적기능이 중요하다. 먹을거리 위주의 도시텃밭이미적경관을 높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확을 하였을 때나 한 겨울에는 공원이나 기타 경관 녹지에 비해 미적경관이 떨어진다. 도시에서 텃밭은 도시의일부로 도시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손색이 없어야하며 필요 시 이들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있는 잠재력을 갖추어야한다. 아름다운 경관과 체험은 도시민에게 정신적 먹거리에 해당하는 정서 순화와 치유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텃밭을 운영할 때 텃밭의 일부분이나전체적인 식재 디자인을 주변 경관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꽃과 허브식물 등 화훼류와화목류, 그 외 유실수 등을 의도적으로 비중있게 식재함으로서 텃밭 운영자 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정신적 먹거리를 제공함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도시농업에 대한 제언

도시농업의 미래지향적 핵심 가치는 치유에서 나눔으로, 나눔에서 희망공유라고 할 수 있다. 치유와 나눔과 희망을 핵심가치로 하는 서울 도시농업의 기본 방향은 1) 비닐 등 일회용품과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도시형 생활쓰레기를 재생시키는 친환경 녹색 생태공간으

로서의 도시환경적 안전지대 '에어포켓'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몇 몇 채소작물에 국한되기 보다는 곡식류, 토종작물, 꽃과 나무를 함께 심고 가꾸며 즐기는 시민들의 원예활동, 즉 가 드닝의 실천 공간으로서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시사회적 '복지지대'로 만들 어야 한다. 3)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환경생태적 중요한 '거점지대'로 만들어 도시 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도시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도시계획요소로서 인정되도록 정책적으 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도시텃밭 모델 개발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몇 가지 사안을 아래와 같이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 ① 도시농업 유형별 정책적 지원 범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도시농업 2.0 단계에서의 중점 추진사항인 '나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나눔'기준을 명시하여 일상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에서 수행해 온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영역으로의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② 인공지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자텃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 특성상 옥상, 골목길, 도로변 등 대부분의 공간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인공지반으로 되어 상자텃밭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중복적으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 일회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치되거나 폐기되어 새로운 도시문 제로 전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배포된 상자텃밭에 대한 바코드 작업 등을 통해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가적인 상자텃밭 보급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디자인 된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서울시 도시텃밭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도시텃밭 정책을 단계별로 중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단계를 1단계(2012-2014), 2단계(2015-2017), 3단계(2018-2020)으로 구분하였고, 1단계: 개인과 가족의 심신의 안정과 치유 기능(도시농업 1.0) → 2단계: 이웃 주민과 단체,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 기능(도시농업 2.0) → 3단계 교육과 환경, 도시재생과 로컬푸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시스템으로의 정착을 지향하는 희망 기능(도시농업 3.0)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④ 서울시 도시농업 및 도시텃밭에 대한 정책 방향은 주민 참여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취미 여가에서 도시 재생 및 일자리 창출형으로, 사회복지적 선택에서 필수수단으로, 도시 계획 수립 시 핵심요소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도모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와 관련 정책 연구 및 학술적 연구 또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⑤ 학교나 도시공원, 공공 텃밭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가족, 주민, 학생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융복합형 텃밭모델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마을, 학교 공동 체별로 개별적인 텃밭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캐나다 벤쿠버 브리타니아 커뮤니티 센터 (Britannia Community Center)에서와 같이 지역 소재 텃밭을 거점으로 한 텃밭 활동을 통해 주민 센터와 인근 유치원, 초중학생은 물론 복지관, 병원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텃밭의 사회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였듯 서울의 도시농업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녹색 생태공간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안전성을 회복하는 도시환경적 안전지대 '에어포켓'으로, 다양한 원예활동의 무대로서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공동체 회복 등 도시사회적으로 안전한 '복지지대'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적, 경제사회적, 문화교육적 중요한 '거점지대'로 만들어 금후 서울 도시계획의 필수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동력과 시민사회적 지원확보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김완순. 2015. 한국 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국립수목원.

김완순. 2014. 서울시 도시텃밭 모델 연구. 서울특별시.

김완순. 2014. 서울 국제 도시농업 컨퍼런스 자료집.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 종자생명산업과.

농촌진흥청. 2012. 정원가꾸기의 사회·경제학. RDAINTERROBANG.

서울시. 2015. 서울 도시농업활성화 추진계획.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2015. 서울시 푸른도시국 업무계획. 푸른도시국.

서울시. 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2013.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시립대. 2014. 정원 대중화 심포지엄.

제1주제 민선 5기 서울 도시농업, 무엇을 남겼나?

서울 도시농업 원년 선포와 변화 민동욱(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I.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 선포 배경

- 1) 도시농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 서울시 도시농업조례제정
- 2) 2011년 배추값 폭등
- 3) 서울시의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적 추진의지
- => 2012년 6월 2일 '서울도시농업원년선포'

도시농업 10계명 발표(06.02)



- 2.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도시농업 교육확대
- 3. 마을단위 도시농업 풀뿌리 조직을 육성,지원
- 4. 학교교육과 연계한 어린이 청소년의 심성발달
- 5. 생태순환형 도시농업 실천
- 6. 도시농업 생산물의 사회적 나눔
- 7. 네트워크와 농부시장을 통한 농어촌의 교류 활성화
- 8. 도시농업 수도 서울 마스터플랜
- 9. 도시농업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
- 10.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1. 도시농업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서울시 도시농업의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도시농업팀" 신설

= 도시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립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2.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연구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수립
- 서울시 도시농업현황 및 특성분석
-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추진방안연구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3. 도시농업 텃밭조성 확대

- ◎ 도시 텃밭 면적 : 2011년 29.1ha => 2013년 108.3ha
- ◎ 도시농업 참여 : 2011년 28만7000명 => 2013년 44만명
- ◎ 자투리텃밭 : 2012년 3398구획 => 2013년 7510구획
- ◎ 옥상텃밭 : 2012년 144개소 => 2013년 267개소
- ◎ 학교농장은 : 2012년 30개소 => 2013년 77개교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4. 기초자치구 도시농업 정책변화

- 도시농업조례 제정 : 12개구
- 공용주말농장 운영
- 상자텃밭 분양
- 기초 자치구 전담행정조직 구성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5. 다양한 도시농업 사례

- 도시농업공원조성 : 노들섬, 은평갈현텃밭, 용산가족공원
- 서울시청 양봉, 광화문 논벼상자, 농부의 시장
- 도시농업지도자양성, 도시농부학교
-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변화

6. 도시농업 민관거버넌스

- -도시농업위원회 = 민,관,전문가로 구성(13명)
- -민간단체 간담회
- -도시농업 청책간담회
- = 도시농업 민간단체와 다양한 소통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평가

- 1.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의 편식?
- 2. 마을단위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마을공동체형성
- 3. 도시농업의 다양한 교육정보제공
- 4. 도시농업과 농어촌교류활성화의 사례?
- 5. 행정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 6. 참여하는 도시농부들이 만드는 다양한 문화





제2주제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다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고창록(한신에코팜 도시농업-사회적경제 포럼 대표)











1 . 도시농업의중요성과 필요성

도시농업, 세계적인 추세

독일 - 클라인가르텐

일본 - 시민농원

영국 - 얼로트먼트 가든



- ✓ 1860년대 클라인가르텐(작은농장) 운동시작 ✓ 현재약 140만개 (1개 평균 250~300㎡) ✓ 도심 속 먹거리 재배, 녹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
- ✓ 1920년대시민농원 개설 ✓ 현재약 1,164ha(3,382개소,16만5천구획) ✓ 체재형·주말형, 도시형·농촌형, 어린이농원, 생태관광지 등 형태 다양



- ✓ 1887년 도시의 소규모 경작지 '얼로트먼트' 제공 ✓ 1999년 25만구획 →2010년 33만구획으로 증가
- ✓ 약 247,500톤 먹거리생산으로 식량자급률 증대

● はたかりくつき

1 . 도시농업의중요성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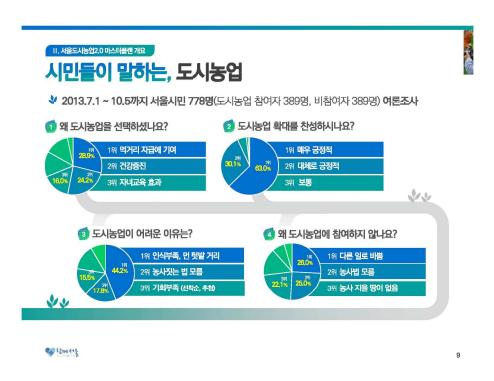
서울도시농업, 두번째 단계를 향한 발걸음



44 ■ 제4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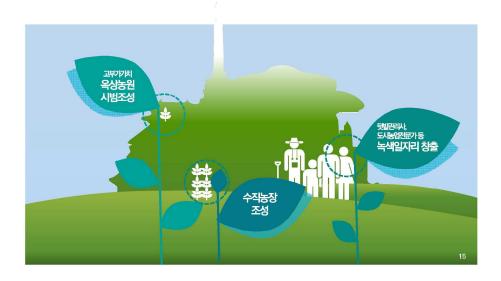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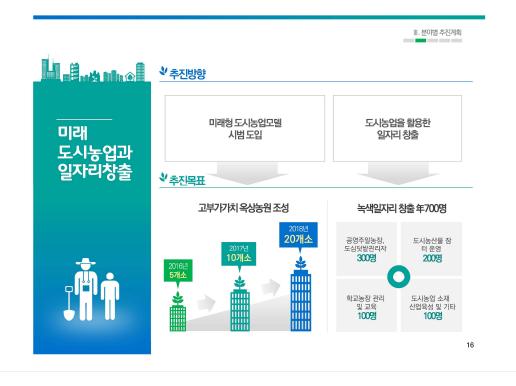




Ⅲ. 분야별 추진계획

둘, 미래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100g * 100g * 100g * 100g

메로에 전체 셋,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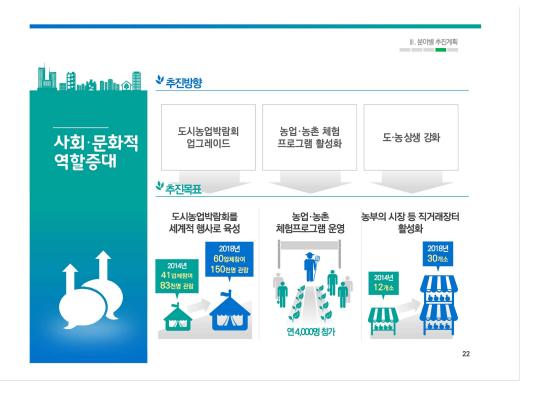




Ⅲ. 분야별 추진계획

넷, 사회·문화적 역할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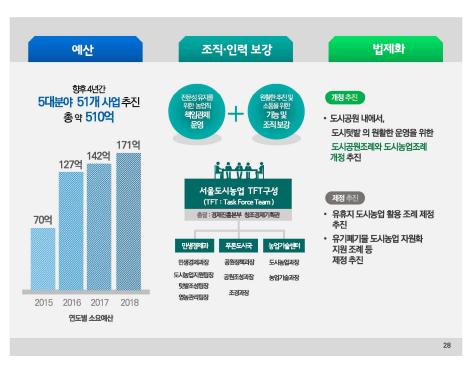






54 ■ 제4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









제2주제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다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종석(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명예교수)

서울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시 도시농업위원

목차

- 1. 도시농업의 중요성
- 2. 비전 . 목표
- 3. 정책방향
- 4. 주요사업
- 5. 서울 도시농업의 의미

1. 도시농업의 중요성

- (1) 도시생활 환경개선
 - 1) 녹색공간 확보 및 창출- 도시 열섬화 완화
 - 2) 에너지 절감 : Co2 배출 절감
 - 3) 자원 재생, 활용 : 음식물쓰레기, 빗물, 낙엽
- (2) 복합 문화 공간 창출
 - 도농 (都農) 문화활동과 교류
 - ✓ 텃밭문화
 - ✓ 공동체문화
 - ✓ 인문 및 예술과의 융합

(3) 도시민 보건적 활용

- 1) 휴식
- 2) 심신치유
- 3) 체육활동
- 4) 농업의학
- 5) 노인성 질환, 치매방지 : 국가의 보건적 비용부담 절감

(4) 공동체 형성



(5) 생태계 복원

- 1) 빗물 저장, 활용(Bio-Top)
- 2) 양봉,곤충
- 3) 생태정원

(6) 한국농업 패턴의 변화 선도

- 1) Food mileag개념 전파
- 2) 농업의 6차 산업화
- 3) 생산자(농촌)와 소비자(도시)의 연계(직거래)
- 4) 도시농업형 귀농, 귀촌
- 5) Silver농업(농촌의 고령화 대책)

(7) 새로운 일자리 창출

- 1) 도시농업 문화 상품개발(탐방안내, 해설, 특산품 개발)
- 2) 도시농업용품산업(Garden Furniture, 농기구, 재료)
- 3)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4) 육묘산업(Plug 묘, Pot묘, 상자묘)
- 5) 곤충산업(양봉, 식용곤충 지체 부자유 장애자)

2. 비젼 & 목표

- (1) 비젼
 - 1)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 2) 도시가 한국농업의 변화를 유도
 - 3) 도시공원녹지(정적녹지)를 생활녹지(동적녹지)로 전환

(2) 핵심가치

- 1) 가족(건강)
- 2) 이웃(공동체, 소통)과 사회
- 3) 도시와 농촌(상생)

(3) 목표

- 1) 시민주도형 활동공간 확보
- 2) 공동체 회복과 소통
- 3) 도시 잠재자원 순환
- 4) 도시는 농촌으로, 농촌은 도시로 융화
- 5)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당면과제

- 1) 도시농업 기반조성
- 2) 도시농업 공익성 확대
- 3) 도시농업 엘리트 전문가 육성
- 4) 고품질 일자리 창출
- 5) 도시 쓰레기의 자원화 산업 육성
- 6) 도시농업 시민단체의 정예화, 전문화

(5) 희망사항

- 1) 도시농업의 6차 산업화
- 2) 도시농업의 지방(농촌, 산촌) 확산
- 3) 서울도시농업이 한국 농촌의 변화 선도
- 4) 예산의 증액: 500억을 1,000억으로

(5) 미래 도시농업

- 1) 고층 도시농업 복합빌딩 건축(농업과 산업, 정보화, 건축 기술)
- 2) 지하공간 도시농업
- 3) 수중공간 도시농업
- 4) 우주공간 도시농업

3. 정책방향

- (1) 참여형(수동형) → 생활형(능동형)
- (2) 개인, 가족형 → 사회, 공동체, 힐링형
- (3) 주말 텃밭형 → 도시 공원형
- (4) 취미, 여가형 → 전문 도시농업형
- (5) 소극적 자원처리형 → 전문적 자원 활용형
- (6) 계절형 → 년중 지속형
- (7) 관(官) 주도형 → 민관(民官) governonce형
- (8) 재배작물의 한정성 → 재배작물의 다양화, 전문화
- (9) 행사위주 홍보 → 매체가 관심을 가지는 홍보

4. 주요사업 주요사업 (2015~2018, 4년간)

■ 5대분야, 51개사업(기존 25, 신규26), 50,917백만원

5대사업	건수(신규)	예산(백만원)	비율(%)
■ 실천공간확보	9(12)	33,161	65.13
■ 미래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9(9)	7,498	14.73
■ 도시재생, 자연순환	3(6)	1,910	3.75
■ 사회, 문화 역활 증대	9(12)	6,873	13.50
■ 시민소통확대	4(12)	1,475	2.90

(1) 실천공간확보

- 1) 현황
 - 공간

도시농업 공간(서울시 농업공간의 17.6%, 11ha) 농지면적 (서울시면적의 약 1%, 671ha) 공원면적 (서울시면적의 28%, 16,900ha)

■ 위치

서울시 외곽 강동, 도봉,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주변

- 2) 대책
 - 도심, 인근공간이 필요(옥상, 자투리공간, 근린공원, 녹지공간)

(2) 미래농업, 일자리 창출

- 1) 현황
 - 도시농업을 통한 수익모델이 없음
 - 전문가 활용방안 미흡
- 2) 대책
 - 도시농업의 전문화
 - 도시농업의 확대 옥상텃밭, 빗물활용, 수직농장, 지하LED농장, 농업공원 등

(3) 도시재생, 자원순환

- 1) 현황
 - 음식물쓰레기 활용방안 미흡(필요성 인식, 처리기술, 대중성)
 - 낙엽의 자원화 미흡 : 처리기술, 상품화
 - 하수도 슬러지 퇴비화
 - 빗물자원 활용 미흡

2) 대책

- 발효기술 개발
- 제염기술 개발
- 악취제거기술 개발
- 복합 펠렛비료 제조
- 상품화 : 수익사업으로 확대
- 빗물보관, 활용기법 개발
- 생산단가 절감 대책

(4) 사회, 문화적 역할 증대

- 1) 현황
 - 대중적 공감대 형성 및 문화적 확산 미흡
 - 효율성에 대한 vision제시 부족
 - Event성 행사

2) 대책

- 지속 가능한 다양한 행사 발굴
-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상생행사
- Farm투어, 체험, 캠핑, 농부시장 육성

(5) 시민소통 확대

- 1) 현황
 -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운영
 - 홈페이지 운영
 - 도시농업 백서 발간

2) 대책

- 도시농업 + 문화
- 도시농업 + 예술(디자인, 미술, 사진 등)
- 종합 On line 포털 site개설
 - : 전국의 도시농업 행사 장터, 교육, 이벤트 등
- 흥미롭고 유익한 도시농업 동영상 제작(예: KBS 2TV. 도시농부 되기)
- 포상제도 확대도입

5. 서울 도시농업의 의미

- (1) 도시가 농업을 품고 상생하려는 노력
- (2) 실천녹지공간 개념 창출
- (3) 녹색발전소(환경, 에너지) 개념발굴
-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시
- (5) 시민사회 의식변화 유도
- (6) 새로운 도시농업 문화의 창출
- (7)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 (8) 농업과 생명에 관한 교육적 효과
- (9) 국민건강비용 절감

생각이 새롭고 아름다우면

도시민의 삶이 편안 합니다

The End.....

제3주제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 생활클럽동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미자와 렌(생활클럽생협·동경 정책조정부 정책추진과장)

2015 서울 도시농업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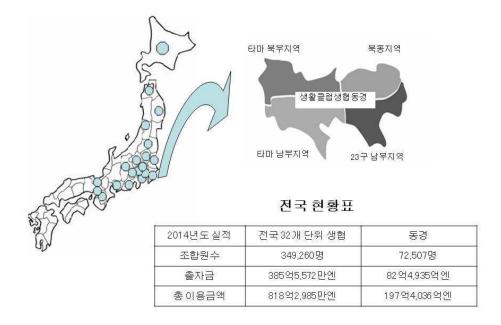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2015년6월5일

생활클럽생협·동경 생활클럽 농업진출 검토 프로젝트 사무국 정책조정부 정책추진과장 토미자와 렌(富澤 廉)

생활클럽생협동경의 전국 현황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만들기

생협에 있어 도시농업의 의미

도시농업생산자와 조합원(생활자)이 함께 하는 실천활동을 1976년부터 시작



생활클럽생협의 슬로건은

「도시농업을 지키고 육성하자」 「농(農)이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도시농업 생산자와 제휴하면서 느낀점

【일반시장과 생활클럽생협의 비교】

일반시장	생활클럽생협
경쟁원리·농산물의 상품화	협동원리 식량으로써의 먹거리가 가진 가치를 소중히
수입농산물의 급증·자급률 저하	국내의 자급력 향상
먹거리에 대한 불안 유전자조작·잔류 농약 등	재래종자와 농법의 추진, 생산자와 공동개발
고령화·농업후계자 부족	농업 계획에 참가、위탁농사 조직화



NPO법인 타가야스(たがやす) ~ 농가와 시민이 협동하는 위탁농사 네트워크~



2만개 정도의 양파 모종심기

회원농가에 지원인력을 소개하거나 마치다시(町田 市)로부터의 위탁으로 농업연수도실시하고있음.

농업지원은 유상이며 적극적으로 농가 지원을 진행함.



여름 야채류의 재배 준비 (지지대 세우기)



유치원 체험농원

아이들에게 농업체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만들기, 매년 감소하는 도시농지를 보전하기, 도시농업과 자연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농원 클럽의 강좌를 개설함。

위탁농사네트워크 NPO법인 타가야스 料表形引证客 취농활동 科多及公司 유상볼런티어 취농자의 육성 新老双鸟 足否 在是 以 老 是 医 以 老 岩지정보 등록인재 시민체험농원 파견 -야채의 재배 지도 농업위탁활동 -이벤트 기획 -시민에의한 생산물의 생산 어린이 농원의 관리 -신규취농자 기술지도 위탁농사 희망자의 모집 농원주인들과의 의사 소통 NPO법인 타가야스 사무국 참가자의 등록·파견 농자재의 공동이용 홍보활동 농자재의 엉 신규 영농 용지의 조사활동 공동이용 홍보활동 CA 日本には下来 공유 농업 자재의 관리 OF 타 단체와의 관계만들기 批 생산량과판매량의 판 퇴비사용농가의 소개 조정 は日田 홍보활동 시민에의 협조요청 위탁 지역야채보급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야채판매자로부터 -직판소 판매 -지역이채의 호별배달 -분리 수거 -퇴비화 음식물쓰레기 제공 -농가의 야채 집하 및 농가에 판매 및 배달 출하 대행 음식물쓰레기로 재배된 야채 본격적 농업지원 제공

동경의 생물다양성 환경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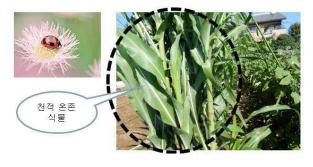
* 조사기간: 2007년~2013년

* 생물 기록수: 5,709건

* 기록된 총 생물 수: 1,299종

* 조사지 : 총 225 곳 / 31개의 구 및 시 * 참가자수 : 총 2,451명 / 연평균 350명 (조합원 및 생산자 등의 상호조사를 포함)







생활클럽생협의 체험농원 「노랏코 오이누마(のらっこおいぬま)」



파 재배 강습회

생활클럽생협만의 특징

-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
- ▶재래종자와 농법에 힘을 쏟으며、전통야채 재배에도 도전
- ▶회원간의 교류,정보교환
- ▶생활클럽 회원이나 생활 클럽 운동그룹에 있어 지역정보 교환의 장
- ▶참가는 등록제이며, 향후 동경도내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

밭농사에 있어(생협조합원의 농사지원 볼런티어 활동)



잎채소류코마츠나(**小松菜**)수확작업

제휴하는 지역생산자의밭에서 주1회 、

채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조합원이 농사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지원함.

마멧코 클럽 (まめっこくらぶ) 텃밭을 통한 체험교류







지역생산자의 텃밭에서 조합원과 가족들이 콩을 파종

촬영일 : 2015년4월19일(일)

도시농업에서 생협의 역할

- (1) 농산물의 판로 확보[⇒농가]
- (2) 지산지소(로컬푸드)로 농산물 제공[⇒소비자]
- (3) 지역자원의 순환(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 (4) 안심•안전한 가공업의 시스템 정착
 - 규격외 제품 농산물의 재이용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 (5) 생협의 공동 구입 이외의 활동
 - 규격외 제품 농산물의 재이용
 - •유통기한이 임박한 농산물의 이용
 - •지산지소
 - 안심 안전의 농산물 제공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생활클럽생협의 농업 진출에 대한 구상

·현재.

생활클럽생협동경의 내부에서 농업분야의 진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임。

·타마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농업분야로의 진출 모색。

시민참여형 농업 진출에 대한 관점

①지역의 먹거리 안전 보장

- →일본의 빈곤율은 세계 제2위
- →식량자급률은 40%
-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부족 심각화

②생물다양성보전

- →도시의 농업 자연 파괴
- →다양한 생물종의 감소
- →도시의 농지에서 비오톱(Biotop)건설

시민참여형 농업 진출에 대한 관점

③재해가발생시 피난등의 방재지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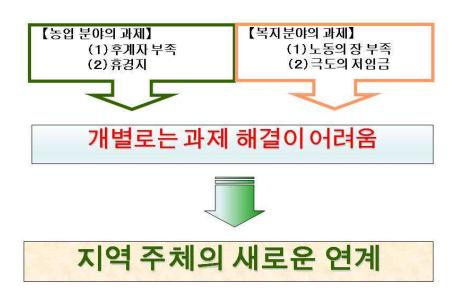
→신선한 식품 조달、가설주택용지、복구용 건설 자재 저장소、 긴급피난장소、Open Space

④고용창출

- →시민에 농사 위탁
- →취농 희망자의 연수、취농 지원
- →장애인들의 취로지원

⑤농업과복지연계 사업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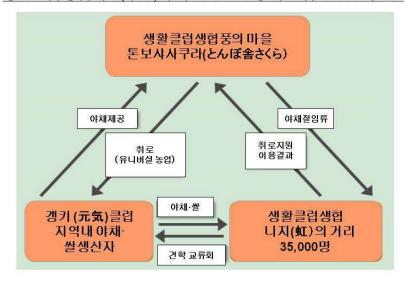
농업과 복지 연계를 통한 과제 해결 가능성



유니버셜 농업의 실천 사례

(농업과복지의 연계사업)

생활클럽 생협치바(千葉)가 목표로 하는 장애인 취로지원 시스템



생활클럽생협·협동촌 히다마리 팜(ひだまりファー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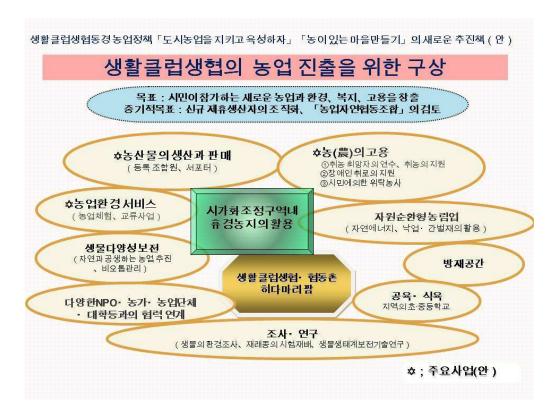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 ~ 생활클럽생협의 사적인 농(農)의 공간 ~ 동경도 아키루노시 토구라(東京都あきる野市戸倉)











결론

- 생협이 가진 인프라, 마켓, 인재 그리고 지역에서의 관계망이 청년 및 장애인의 취로 지원 현장이 분야를 넘어서 함께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
- 일하고 활동하는 공간의 확보가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사업의 창출로 연결되길 희망.
- 사회적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내어가야함.

감사합니다.

2015ソウル都市農業コンファレンス

都市農業を通した生協の 地域社会との関係づくり

- 生活クラブ・東京の事例を中心に-



2015年6月5日

82億4.935万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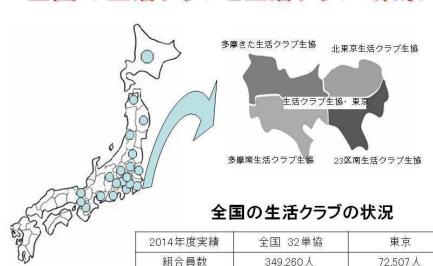
197億4,036万円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東京 生活クラブ農業参入検討プロジェクト事務局 政策調整部 政策推進課長 冨澤 廉

385億5,572万円

818億2.985万円

全国の生活クラブと生活クラブ・東京



出資金

総利用金額

都市農業を通した地域社会との関係づくり

生協における都市農業の意味

都市農業生産者と組合員(生活者)がともにすすめる実践活動を1976年からスタート



生活クラブ東京の合言葉は

「都市農業を守り育てる」 「農あるまちづくり」

都市農業生産者と提携し、野菜の取組みを実施して見えてきたこと

【一般市場と生活クラブの取組み対比】

一般市場	生活クラブ
競争原理・農産物の商品化	協同原理、食糧として食べる価値を大切に
輸入農産物の増大・自給率の低下	国内自給力の向上
食の不安/遺伝子組換え・残留農薬など	種子と農法の推進、生産者と共同開発
高齢化・農業担い手不足	農業への参画、農作業受託組織化

生活クラブ東京 提携地場生産者マップ



NPO法人たがやす

~ 農家と市民による農作業受託ネットワーク~



2万本近くの 玉葱の苗植え

会員農家への援農の 紹介や町田市からの 受託で農業研修も行 なっています。 援農は、有償で行な う本格的なもの。農 家の支えになってい 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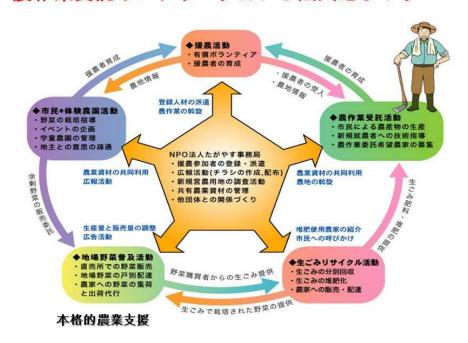
夏果菜類の栽培に向けた準備 (支柱たて)



学童体験農園

子供たちに農業体験を通じて食物の大切さを知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つくりたいとの思いと、年々減少していく都市農地を少しでも保全し、都市農業と自然の再生を図りたいとの思いでこの農園クラブの講座を開講しました。

農作業受託ネットワークNPO法人たがやす



東京におけるこれまでの生きもの環境調査

*調査期間:2007年~2013年

* 生き物記録数: 5,709件 *総記録種数:1,299種

*調査地点:のべ225地点/31区市

* 参加者数: のべ2,451人/年平均350人

(組合員による調査と生産者による調査の双方を含む)





生活クラブ農業体験農園「のらっこ おいぬま」



長ネギの作付け講習会

生活クラブならではの 取り組みも

- ▶環境保全型農業を実践
- 種子と農法にこだわり、 伝統野菜づくりにもチャレンジ
- ▶入園者同士、情報交換 や交流
- ▶生活クラブや生活クラブ 運動グループの地域情 報の交換の場
- ▶参加は登録制、今後は 都内に徐々に増やして いく予定です。

畑においでよ(生活クラブ組合員の援農ボランテイア活動)



葉もの (小松菜) の収穫作業

提携地場生産 者の畑にて週 に一度、

野菜の種まきから収穫まで、 組合員が一緒に農作業しています。

まめつこくらぶ(畑での交流体験活動)







提携地場生産者の畑にて組合員とその家族が一緒に枝豆(大豆)の種まき 撮影日:2015年4月19日(日)

都市農業において生協の果たす役割

- (1)農産物の販路先確保[⇒農家]
- (2)地産地消の農産物の提供[⇒消費者]
- (3)地域資源循環(生ごみリサイクル)
- (4)安心・安全な加工事業への取組み
 - ・規格外品などの農産物の利用
 - ·農産物の高付加価値化
- (5)共同購入以外の取組み
 - ・規格外品などの農産物
 - ・賞味期限の迫った農産物の利用
 - •地産地消
 - 安全安心な農産物の提供

都市農業を守り育て もっと都市農業を発展するために

生活クラブの農業参入に向けた構想

- •現在、生活クラブ東京内にプロジェクトを おき検討中。
- ・多摩地域の農業振興地域で農業生産法 人を立ち上げて農業へ参入したい。

市民参加型の農業参入に向けた視点

①地域食料安全保障

- →日本の貧困率は世界第2位
- →食料自給率は40%
- →社会的弱者の食料不足が深刻

②生物多様性保全

- →都市の農業自然の破壊
- →多様な生物種の減少
- →都市農地でのビオトープの建設

市民参加型の農業参入に向けた視点

③災害時避難など防災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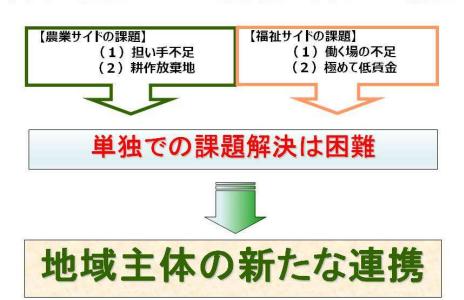
→生鮮食料の調達、仮説住宅用地、復旧資材 置き場、緊急避難場所、オープンスペース

4農の雇用創出

- →市民による農作業受託
- →就農希望者の研修、就農の支援
- →障がい者就労の支援

⑤農福連携事業の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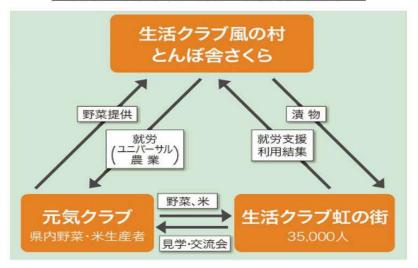
農業と福祉における課題と今後の可能性



ユニバーサル農業の実践例

(農業と福祉の連携事業)

生活クラブ千葉がめざす障がい者就労支援のしくみ



生活クラブ・協同村 ひだまりファーム

豊かな自然を満喫 ~生活クラブのプライベート農空間~ 東京都あきる野市戸倉











最後に

- ・生協がもつインフラ、マーケット、人材、そして地域での 関係性と若者や障がい者の就労支援の現場がジャン ルを超えて融合することで新しい可能性が生まれるの ではないか。
- •働く場の確保が、地域を豊かにする事業の創出に繋がっていけばいいのだと思います。
- •社会的事業を生み出していくために共に知恵を出し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3주제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 개선 방안

최정석(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농업 컨퍼런스 발표 자료 2015.06.0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 개선 방안

최정석 중부대학교도시행정학과 ecopark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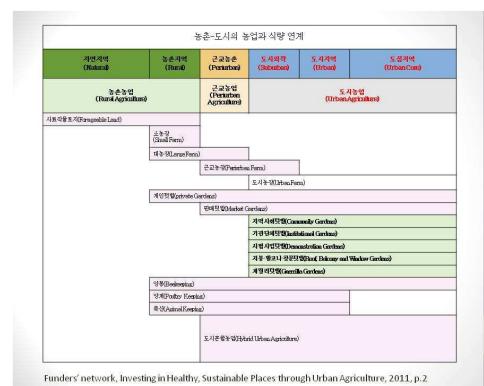
1.도시농업의 개념

□ 복잡한 개념

- 복잡다양,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함
- → 농업/비농업, 영리/비영리, 도시내/도시주변, 생산/생산가 공유통, 농업/목축포함,.....







□ 도시농업의 법적 정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4년 11월에 농축식부(종자생명산업과) 소관 법률로 시작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전문 농업인에 의한 상업적 영농활동 제외 가공 및 유통판매 제외 환경생태 목적의 도시농업 배제





2. 도시농업의 편익

구 분	도시농업의 편익					
	• 폭우 및 홍수 영향을 줄이고 빗물 침투를 증가시켜 물 순환에 기여의					
	• 음식물 쓰레기 등 자원 재활용					
	• 수송에너지 절감, 화석연료 사용 절감, 태양 에너지 이용					
화경생태	• 현대농업의 장거리 푸드 마일리지 감소의					
2001	• 불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					
	• 녹지축으로 기능					
	•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안전성에 기여					
	• 교외지역의 경작활동을 줄여 자연보호					
	• 주변 부동산 가치의 상승 ¹⁰⁾					
	•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11)					
	• 도시의 녹지경관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감소					
경제	• 먹을거리 생산 및 구매비용 절감12)					
	• 양질의 먹을거리 제공 및 식량 안보13)					
	• 식료품 수송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					
	• 먹을거리 비용감소로 다른 소비를 유도					
	• 잉여생산물을 지역 시장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 돕는 방식으로 도시빈곤 퇴치이					
	유용한 수단					
	• 육체 활동으로 건강 증진 ¹⁴⁾					
	• 원예 치료 등으로 보건 중진					
사회문화	• 공동체 활동과 지역인식 증진15)					
ाभरभ	• 도시민들의 자연성(wilderness) 증진					
	• 생계수단을 제공16)					
	• 구직약자 및 도시빈곤층에게 일거리 제공17)					
	• <u>로컬푸드(local food)</u> 운동에 참여로 실직자 감소					
	• 청소년들의 참여 학습을 통한 바람직한 정서 함양					

	• 다른 자연자원을 보전(폐수를 활용하면 자연수는 음용수로만 활용 가능)			
	• 화재의 확산 방지			
	• 재난.재해 발생 시에 피난처로 활용			
	• 도시의 다기능 녹지 확보			
	• 도시의 투수성 토양 공간 확보			
도시환경	• 도시생태계 유지 및 보호, 동식물의 서식처			
	• 공기정화			
	• 소음방지			
	• 도시내 농지의 보전과 활용			
	• 도시외부로부터 폐기물을 들여오는 열린 순화계를 차단			
	• 폐수와 유기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			
	• 갈색지역(brownfields)를 생산공간으로 전환하여 환경개선과 토지가치 증진18			
	• 직접 가꾼 채소와 유기농 채소를 더 선호하는 최근 소비수요를 충족			
	•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한 식량 확보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전	• 제초와 농약 사용의 감소 ¹⁹⁾			
(식물공장)	• 전쟁 시에 부족한 식량의 보충 수단20)			
	•식물공장으로 기능하여 식물생산, 폐수의 음료학, 폐기물자원학 가능21			
	식물공장 • 전천후 생산녹지로 어떤 기후, 어떤 환경에서도 로컬푸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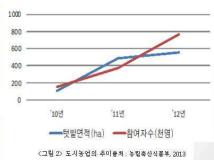
8) EPA, (2011), Brownfields and Urban Agriculture, p.1

, 선박이용 시 45kg당 화석연료 3.8L를 사용한다("Eat Locally, Ease Climate Change Globally", The Washington Post(2010.5.27.).

3. 우리나라도시농업의 특성과 문제

- 풍부한 도시농업 잠재력 보유(데스포미어교수, 2011)
- 도시농업의 특성
- 수평적 도시농업 위주, 수요의 다양화 진행, 근교 비닐하우스 농업과 혼동, 농원과 농장(즉, 텃밭) 위주, 벽면옥상 농업이 미발달, 주거밀착형 도시농업 취약, 수직적 도시농업(식물공장, food towers, plantfactories) 미발달
- 특히,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서울 1인당 0.06m2/ 경기 0.11m2)





⁹⁾ 보통 상품의 평균적인 거리는 2,400km이다(Priog. R. and A. Benjamin(2003). "Checking the food odometer: Comparing food miles for local versus conventional produce sales to lowa institutions", Leopold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e.)

4. 도시농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 안철환, 장동욱, 최영국, 황지욱, 장준호, 이석환, 이병준, 윤희정, 이병준, 심재홍, 이원형, 허주녕, 김태곤, 이빛나라, 이창우, 김미영, 지태관, 이양주, 유대현, 유의선, 황정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대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여러 연주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 국외에서도 EPA, WHO, Gorgolewski, Peters, Brown & Wakefield 등 다수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주요 장애 요인이

도시농업 공간의 부족으로 인식

Urban Agriculture in the Sky: Hong Kong's Farming Boom

The New York Times

n one of the world's most dense cities, urban agriculture fields its place on the rooftops of Hong Kong





□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현황

- ☞ 도시농업은 계속 확대되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면적은 2011년 485ha → 2012년 558ha
- 참여자수는 2011년 373천명 → 2012년 769천명
- 텃밭 수는 2011년 4,093개소 → 2012년 12,662개소

□ 최근 지자체들이 도시농업에 적극

- 전국 68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2014.04 현재)
- 서울(강동구, 도봉구), 경기도(수원시 등), 인천(부평구) 등이 활발

♨ 외국의 도시농업 현황

- 독일의 클라인가르텐(100만개), 영국의 어랏먼츠(allotment)(30만개), 일본의 시민동원(3천개), 미국 뉴욕의 Roof garden(6백개),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의 City farm(8,200개) (자료: 농림부, 2013.06)

5. 국내외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 외국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 영국: 1890년 「알롯먼츠법(Allotments)」
- 독일: 1983년 「연방소정원법(Bundeskleingartengesetz)」
- 일본: 1990년「시민농원정비촉진법」
- → 외국의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도시농업 공간 부족이 핵심 문제로 등장
- → 각종 정책이 등장: 도시농업 전용지구/ 도시농업친화지구 등을 지정/ 자금지 원/도시기반시설로 공급 등

●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 2014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도시농업육성종합계획' 을 발표
- 세 가지 핵심사업 설정 : ① 도시농업을 위한 녹색공간의 확충, ② 도시빌딩 녹화 및 식물생산공장의 산업화, ③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구축

6. 도시농업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도시계획관련 제도의 개선

□ 도시농업을 주요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 고려 사항에 포함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적극 반영
- 도시농업이 도시관리계획에 내재화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농업 공간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중요
- 도시농업을 도시계획에 제도화하는 방법
- ① 도시농업을 허용용도로 인정하는 것
- ② 하나의 새로운 지역지구제로 만드는 것
- ③ 중복지역지구(overlay zoning)를 신설
- ☞ 중복지역지구제(overlay zoning)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시의 특별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정된 지구 위에 특별지역지구를 중복적으로 지정하는 방식

□ 「국계법」을 통해 도시농업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에 포함

→ 「도시농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도시농업 공간 '텃밭'을 「국계법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규정해서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기 반시설)	다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 지·공공공지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 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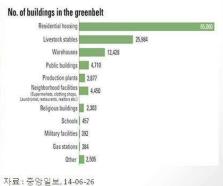
□ 도시지역의 용도지구에 '도시농업지구'를 신설

- 현재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10개의 용도지구가 지정
- 「국계법」제37조의 ③의 근거규정을 이용하여 도시농업지구를 설치하는 방법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별도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 기존 지역지구제의 관리 관행을 변경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녹지)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의 농업 활성화
- 「국계법」제38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농업 용도의 대폭 허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허가사항 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제외
- 「국계법」제39조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 기간 동안 도시농업 용도의 허용





□「건축법」의 개정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

(1) 제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한 조경면적 개념을 수정

☞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며(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2014년 국토부 녹색건축과 위임행정규칙으로 고시)

 \rightarrow 조성 내용을 기준으로 식재 면적과 조경시설 면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조경면적 기준을 수정 \rightarrow 엽채류 등도 식재에 포함시킨 후 텃밭을 식재면적에 포함하고 부대시설은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방법

♨ (현재) 식재: 수목, 잔디(?), 초화류(?)/ 조경시설: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

- (2) 건축법에 따른 녹화 면적에 도시농업용 구조물 면적을 포함하는 방안
- ← 녹화의 개념 수정이 필요

(예) 현재 건축법 등은 녹화를 식물을 이용해 피복 녹화하는 것을 의미; 수목, 잔디, 초화류, 맥문 동~

□ 초. 중. 고 학교 건물의 옥상을 텃밭으로 변경

- → 학교 부식 공급, 학생들의 생태교육,
- → 에너지 절약, 쾌적한 학교 환경 증진
- → 주거지의 평면(슬라브)지붕의 미관 저해 문제 해소







□ 공동주택의 도시농업 공간 확보

-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텃밭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 조경시설과의 경합 <- 주민선호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와 제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한 주민공동 시설에 공동텃밭을 지정하거나 기존의 활용성이 낮은 오픈스페이스를 텃밭으로 변 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시농업 공간을 녹지로 인정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도시농업공간(특히 도시농업농장)을 녹지 율에 포함
- 사업시행자들이 무상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로 도시농업 공간을 계획하여 조성







2) 도시의 공원·녹지 제도의 개선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주제공원에 추가된 '도시농업공원' 의 수정 필요
- 현재는 조성규모를 1만㎡ 이상으로 제한 → 면적 확보가 어려운 기존 도시지역에 도시농업공 원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 → 조성 규모 제한을 신개발지역 이나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지구로 한정하고 기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공원과 도시농업농장의 규모 제한 을 대폭 완화할 필요
- □ 미조성 도시공원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 미조성 도시공원의 일몰제 및 공원조성 비용을 고려 →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 · 활용 → 공원조 성으로 인정하는 방안
- 미조성 도시공원 전체 혹은 일부를 도시농업공원 혹은 공영농장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농업 텃밭으로 활용 → Foodbank 사업과 연계 가능



〈그림 2〉도시공원 결합형 도시농장조성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p.102

□ 도시공원 내 경작에 대한 소유권 제한 규정을 개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공원을 제외한 다른 도시공원 내에서의 경작을 금지
- (시행령 제21조) 토지소유자 외는 농업활동을 못하도록 규제
- (시행령 제24조) 특정 행위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제 →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사 행위도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는 엄격한 제한 → 유상·무상 임대를 통한 도시농업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

□ 근린공원(생활권공원)에 대해 도시농업을 허용하는 방안

- 근린공원을 보전형과 조성형으로 구분하는 방안(LH연구원)
- 보전형 근린공원의 경우, 기존 경작지 외에도 훼손 정도가 심한 부분에 도시농업을 허용
- 조성용 근린공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엄선된 부문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을 도입

□ 생태면적률 산정에 도시농업 공간을 포함

-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율을 산정하는 공간 유형에 도시농업공간을 추가하는 방법
- → 도시농업 면적을 별도의 공간유형으로 구분 혹은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 형태에 따라 자연기반녹지, 투수성 수공간, 옥상녹화, 벽면녹화에 포함

3) 기타 법률의 개선 방안

-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법률적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세부 분류	
ı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 한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 공동주택외부텃밭, 주택·공동주 택 인접텃밭	
ΪĬ	근린생활권 도시 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u>농장형</u>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 말텃밭	
Ш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 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 농업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 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ĮΨ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 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 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V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 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 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 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 기존 텃밭이나 주말농장 등의 도시농업농장 지정·지원·관리

- 기존의 텃밭이나 농장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군 단위의 별도의 시행계획을 통해 민영 혹은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지정하여 관리

□ 도시농업 공간의 발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재 1천m2 이상에서 대폭 하향
- 전국 도시농업실태조사 및 도시농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도시농지의 관리 개선으로 도시농지 보전의 동기를 부여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disincentive(농지보전부과금의 대상 축소, 농지보전부과금의 상향 등)를 그리고 농업 용도로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incentive(종합합산과세의 대상 면제 등)를 제공

7. 맺는 말

- □ 도시농업은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
- □ 도시농업은 로컬푸드의 핵심 전략
- □ 도시농업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손쉬운 수단
- 도시의 식량유역(food-shed)를 높이고, 국토의 식량사막(food-desert)을 줄이며, 식량운반거리(food-mileage)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국토·도시의 복원력(resilience)을 증진시켜 재난·재해의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도록 하며,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에 기여하고

......

□ 그러나 도시의 공간(용도)경쟁에서 매우 불리

→ 정책과 제도를 동원한 지원이 필요



최정석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iecoparks@gmail.com

제3주제 민선 6기 서울 도시농업에 바란다

도시농업을 위한 건축에 대하여

백승만(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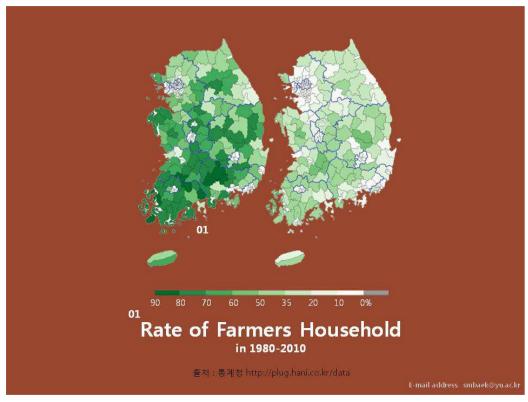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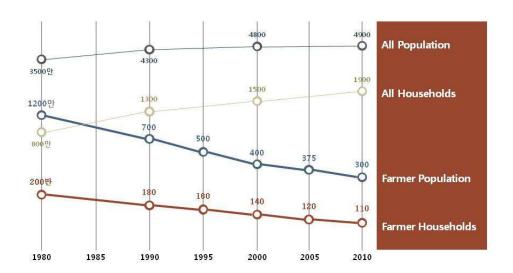
서울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 01. 연구 배경
- 02. 도시농업건축이란?
- 03. 국내외 유사사례
- 04.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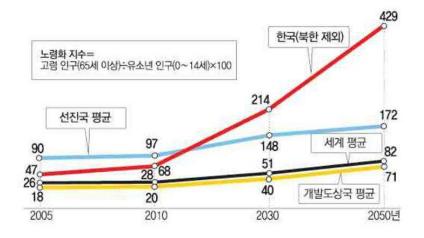


Farmers Decline in 1980-2010



E-mail address. smbaek@yu.ac.kr

01 고령화추이 in 2005-2050



Sixth industry and Agriculture Complex



6차 산업 | 농촌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활동산업



Urban agriculture(Origin)







Kleingarten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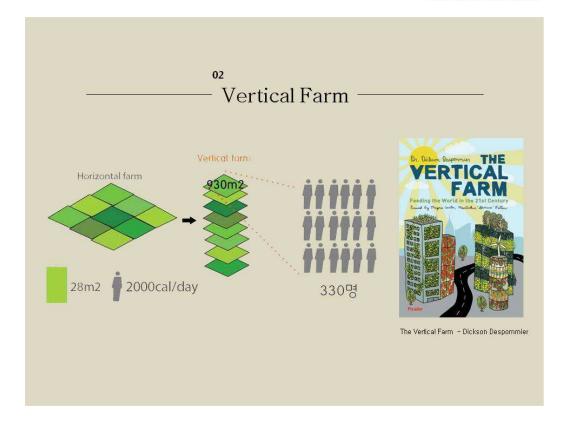
E-mail address. smbaek@yu.ac.kr

oz Urban Agriculture(Category)

	명 칭	목 적	특 징	
1. 동	부평 도시농업공원	농사체험	시민체험, 자투리땅 이용, 참여형, 농 사체험교육운명	
농업공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원, 교육 및 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교육 관, 체험전시관조성	
2. 학	경기도 학교조성사업	재배교육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지역주 민 참여유도	
2. 학교 탓 밭	농림수산식품식 팜스물시범사업	농업의 가치성 교육	팜스쿨 조성, 체험마을 MOU	建 工名。
3. 시 민 탓 밭	서울 특별시 농업기술 센터	공동체조성	도시농업팀조성, 주말농장운영, 농업 체험 프로그램운영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서울시 생활경제과	친환경 농업재배	화학비료 사용X, 친환경농업교육	National State of the last of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 위원회	경의선 공원 활용	30억 주차장부티 무상임대하여 텃밭조성	
	강동구청 : 친환경도시 농업 2020프로젝트	공공텃밭을 통한 공동체형 성	공공텃발, 34명 도시농업전문가 자격 중 취득, 친환경도시농업 특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업	65이상 고령중 우선분양, 농진청 특화 산업	

⁰² Urban Agriculture(Category)

	명 칭	목 적	특 징	
l. }	경기농림진홍재단 : '내가 그린 경기도'	건강한 식문화 보전	재소 텃밭은영	
計量量	강동구청 : 상자텃밭 시범운영	일정량 수확	목표량 설정하여 텃밭원정대 구성	
	경기농림진홍재단	도시녹화 운동 확산 기여	주민 스스로 참여유도	
2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의 가치성 교육	팜스물 조성, 체험마을 MOU	64°2 / 10
	서울특별시 농업기술 센터	농작물 재배기술 연구 및 교육	각 시설별에서 운영가능 하도록 환경 마련	
	해운대구청 도시농업 공원	도시농업 확대 유도	식품 순환형 농사 유도	
i.	2011 부산도시 농업박람회	주말등장, 옥상정원, 베란타원에 등 도시 안에서 가능한 능업방 법 소개		100
. 하기 파니	하자센터	어린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여 텃밭을 가꾸기 및 교육		
1	한라건설 '김포한강지구 한라 비발디'	주민을 위한 공동체텃밭 설계, 주민의 참여물 통한 공동체 의식 유도		
5 7	도시농부의 하루	도심 속 건강한 그린문화	파를 유도	THE RESERVE TO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
do mit the relo	도시농업콘서트 '나는 도시 농부다'	농업과 음악이 용합된 1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	



02 Vertical Farm



Canada – Local Garden



Singapore - Sky Green 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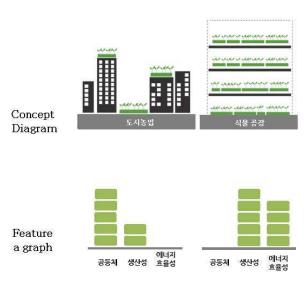


Busan Sujung-dong - 희망마을 수직농장

농촌진흥청 - 식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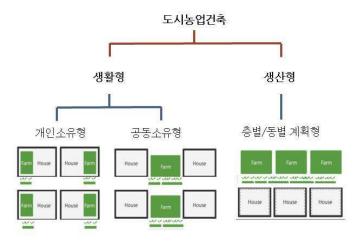
E-mail address. smbaek@yu.ac.kr

Urban Agricultural Architecture





⁰² Urban Agriculture Architecture





Urban Agricultural Architecture



농작물의 생산형위와 인간의 생활행위를 내포한 도시농업건축은 생활과 농작물생산의 행위비중에 따라 크게 생활형(Life Type)과 생산형(Produce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 숲의 생태환경적 주거단지

Bosco Vertical

Vertical Forests: 2 Lush Urban Towers Support 16,000 Plants, Milan, Italy



Designed by Stefano Boeri in Milan, Italy, the twin towers of the Bosco Verticale play host to nearly 1,000 trees, 5,000 shrubs and over 10,000 additional small plants.





E-mail address. smbaek@yu.ac.kr





03

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거단지_Spark home farm

Vertical City Farming: Undulating Mixed-Use Urban Community, Singapore

Designed to provide a spaces for public gardening as well as senior living, this hybrid complex has a rich array of green roofs, terraces and facades allowing for locally-grown produce as well as civic interaction.

The layered concept involves ground-level farms and gardens open to the citizenry as well as individual, upper-level plots that retired persons can work at their leisure.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재활용 주거단지 _Garden Village Apartments - Green Roof

Garden Village is a proposed student-oriented apartment and urban farming / green roof project located in the Southside neighborhood of Berkeley, California.





Sustainable Highlights Include:

- Locally constructed factory built housing system minimizes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waste
 Human scale building layout provides abundant daylight and
- natural ventilation
- Tenant gathering spaces provided at ground level and roof tops - Walking-oriented development located near city center and
- ommunity resources

 Use of on-site car-sharing hub and ample bike facilities reduces
- neighborhood parking, traffic and pollution High recycled content structural system
- Utilizing an existing brownfield
 Population Diversity including affordable housing
 Demolition materials reuse

E-mail address. smbaek@yu.ac.kr



Architect: On <u>Design</u>
Project: Roppongi Nouen Farm
Location: Tokyo, Japan
Photography: Koichi Torimura

Steel Construction: 21.81 Square footage Completion: 2010

Software used: Vectorworks

03

레스토랑을 위한 모듈 온실 Tokyo, Japan _Roppongi Nouen Farm

Roppongi Nouen FARM an urban farm right in the middle of Roppongi which is the center part of Tokyo. People who visit this place can see the process how vegetables grow and also eat the vegetables at the restaurant right next to this farm. This is a place where agriculture and people become close. Glass houses with inorganic iron frame and glass are arranged sterically on a wooden deck just like the surrounding city scape. A farm transported from the country side into the units.





03 도시농업의 리노베이션 오피스 Tokyo, Japan





Development of Model _ Ile-de-France Jean Magerand & Claire Bailly 도시농업을 위한 자족적인 주거단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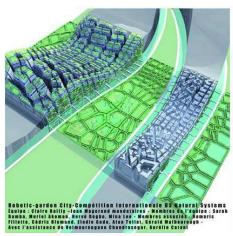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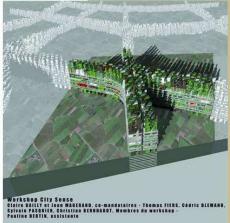
30,000세대의 Self-sufficient City, Saclay, Ile-de-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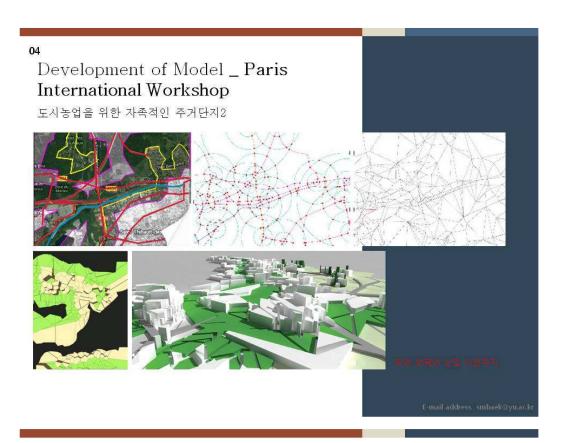
04

Development of Model _ Ile-de-France Jean Magerand & Claire Bailly 도시농업을 위한 자족적인 주거단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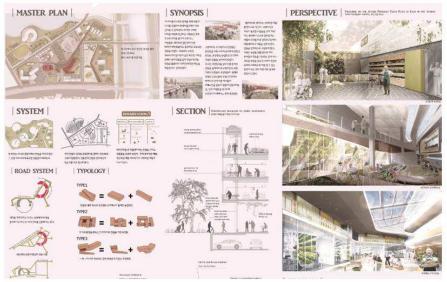
5,000세[대의 Hyper-collective City, Saclay, Ile-de-France



04 Development of Model **_Daegu**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단지1



Development of Model _Daegu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단지1



요양시설에서의 도시농업, 대구 이사아폴리스

E-mail address. smbaek@yu.ac.kr

04

Development of Model _Seoul International Workshop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단지2



Bio Belt City

Bio Belt의 기본 전제는 단지 내 건물들을 뚫고 지나가 단 지 전체 를 하나의 복합 타운로 연결

mass와 Bio Belt라는 물리적인 두 개념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개념 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도시능업의 생활을 제안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agricultural line' 이 생성



Janga City

기존의 건축물을 모두 봉괴시킨 후, 다시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에 따 라 스스로 건축물을 화장시켜 나 갈 수 있도록 계획

기존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Jenga의 형태로 배치하여 사용



Striped Farming City

생산적, 심미적 두 가지 목적을 모 두 충족 시키며 거주자의 취향대로 개인 정원 공간 또는 경작 공간으 로 사용

다목적의 경작로봇은 테라스 외부 레일 시스템을 따라 이동하며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하여 식물 재배를 돕고 수확



A TUFT CITY

기존 도시에 빛, 바람과 같은 자연 의 요소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통 해 새로운 도시체계를 구축

주변의 자연요소를 토대로 바람길 을 만들고,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도시농업의 기능을 넣고,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주거영역 오피스 교육시설 등을 주가적으로 배치

04 Development of Model **_SeoulInternationalWorkshop**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단지2

